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8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형 스마트팜 ‘제빛나’, 레드향 농가 4곳서 시범 추진-3면	미래농업육성과	제주일보
○ 제주도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시설 교육-1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시설 교육-12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기고] 품목농업인연구회, 제주의 공동체 정신을 잇다-14면(이봉실)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주간농사정보-10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가족과 함께하는 ‘꽃꽃계절 소풍’ 행사-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보리밭 잡초 제거-4면	-	제주일보
○ 카라향 소비촉진 2차 홈쇼핑 진행 서귀포시, 8일 홈앤쇼핑 채널 통해-7면	-	제주매일
○ 올해산 하우스감귤 첫 수확...생산량 증가 예상-6면	-	한라일보

(제주일보: 2026년 5월 8일)

○ 제주형 스마트팜 ‘제빛나’ , 레드향 농가 4곳서 시범 추진-3면

제주형 스마트팜 ‘제빛나’, 레드향 농가 4곳서 시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형 스마트 제어 및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인 ‘제빛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월 레드향 재

배 농가 4곳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했다. 1곳당 1200만원(보조 70%, 자부담 30%)을 투입해 이달 중으로 구동기 제어장치, 환경 측정장치,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팜 필수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 설치 후에는 단계별 생육 상태와 품질을 정밀 조사하고, 노동 투입 시간 절감률과 시스템 활용도, 농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5. 8.
제주일보 3면
인류의 기사

(제민일보: 2026년 5월 8일)

○ 제주도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시설 교육-13면



제주도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시설 교육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6일 치유농업센터에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등 32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 7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이론과 △모듈 균형도 분석 및 조정 방법 등 실습으로 운영했다. 5-8. 제민일보 13.

(제주매일: 2026년 5월 8일)

○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시설 교육-12면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시설 교육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지난 6일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등 32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 7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5. 8. 제주매일 12

(제주매일: 2026년 5월 8일)

○ [기고] 품목농업인연구회, 제주의 공동체 정신을 잇다-14면

[기고] 품목농업인연구회, 제주의 공동체 정신을 잇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인력육성팀장

이봉실

제주의 농업은 척박한 자연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져 왔다.

돌이 많은 밭을 일구고 바람을 막기 위해 쌓은 밭담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노동을 나누고 경험을 전하며 농사를 지어왔고 이러한 문화는 제주의 농업을 지탱해 온 중요한 기반이 됐다.

오늘날 기후변화와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 문화는 품목농업인연구회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병해충 대응과 품질 향상 등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연구회는 현장 중심의

학습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9개 연구회 193명의 농업인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실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그 성과를 농업 현장에 확산시키고 있다. 과거 밭담을 함께 쌓으며 축적했던 지혜처럼 연구회는 오늘날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한 해 동안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실천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각 연구회별 '1연구회 1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사업을 적극 추진해 연구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품목농업인연구회는 제주의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실천의 장이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중심 지도와 5.78원이 함께 하고 있다.

제주매일 14

(제민일보: 2026년 5월 8일)

○ 주간농사정보-10면



주간농사정보

◆ **병해충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

□ 만감류

○ 온도관리 : (백화기~만개기) 낮 최고 온도 25도 이하 유지

○ 물관리 : (개화기~만개기) 7일 간격 15~20t/10a 관수

○ 병해충관리: 총채벌레,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 예찰 후 초기 방제

※ 백화기 구리제+기계유유제 (120배) 살포 : 누른무늬병 예방 및 굴응애 방제

□ 키위

○ 신초관리 : 결과지 충실도에 맞춰 불필요한 어린순 제거

○ 꽃봉오리 솜기 : 결과지 10cm 내외일 때 결과지 당 꽃봉오리 3~4개 남김

○ 인공수분 : 개화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이슬이 마른 후 오전 중에 작업

※ 꽃가루 발아율 검사 결과에 따라 증량제 희석배율 조정

□ 마늘

○ 잦은 강우는 잎집썩음병, 무름병 등 발생 확산의 주요 요인

- 토양 과습 방지, 포장 내 발병 개체 즉시 제거, 발생 초기 적용약제 살포

□ 초당옥수수

○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

- 나방류 유충 발생 확인되면 해뜨기 전 적용약제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

□ 단호박

○ 터널비닐 제거하며 건실한 아들줄기 2~3분을 양쪽으로 유인하여 방임재배

※ 제거 전 서서히 환기구멍을 늘려 외부 기온에 적응시킨 후 완전히 제거

○ 웃비료 : 요소·염화칼리 각 20kg/10a를 식물체와 가까운 고랑에 살포

◆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 표준시비란?

필지별 토양 양분상태를 분석(토양검정)하여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음

□ 마늘 실증사업 현장평가회: 5월 중순, 대정읍 일원(문의: 760-3307) **제민일보 10**

(삼다일보: 2026년 5월 8일)

○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13면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 △일시=5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남원읍 하례리) 일대 △참여 대상=도민·관광객 등 누구나/300명 내외/사전예약 필수 △주요 내용=굴꽃계절길 걷기, 굴꽃 화전 만들기, 굴꽃차 시음, 소원나무 꾸미기, 하굴청 담기 등 △사전 예약=제주감굴박람회 누리집(<https://www.jicexpo.com>) △문의=762-3091(사제주국제감굴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0-7512(농업기술원)

5. 8.
삼다일보 13

(제주일보: 2026년 5월 8일)

○ 보리밭 잡초 제거-4면



5. 8.
제주일보 4

보리밭 잡초 제거 7일 제주시 내도동의 보리밭에서 한 농민이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8일)

○ 카라향 소비촉진 2차 홈쇼핑 진행

서귀포시, 8일 홈앤쇼핑 채널 통해-7면

카라향 소비촉진 2차 홈쇼핑 진행 서귀포시, 8일 홈앤쇼핑 채널 통해

서귀포시는 지난 4월 9일 1차 홈쇼핑(천혜향)에 이어 카라향 소비촉진을 위한 2차 홈쇼핑을 추진한다.

이번 홈쇼핑은 서귀포시 공식 쇼핑물 '서귀포in정'과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카라향 소비촉진을 위해 협업으로
5. 8.
제주매일 7페이지날인 8일 오후 3시 10분부터

홈앤쇼핑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귀포in정과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케팅 협업을 통해 만감류 소비 촉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서귀포in정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와 더욱 가까워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두성 기자

(한라일보: 2026년 5월 8일)

○ 올해산 하우스감귤 첫 수확...생산량 증가 예상-6면

올해산 하우스감귤 첫 수확... 생산량 증가 예상

서귀포시 위미리 농가 2.8t 첫 수확... 대형마트 납품
고유가 따른 가온 지연으로 5월 출하량은 소폭 감소
만다린, 수입 늘었지만 단가 상승·품질 저하 소비 부진

올해 제주산 하우스감귤 수확이 막 시작된 가운데 생산량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주 감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던 만다린 수입량은 무관세 적용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수입단가 상승과 품질 저하로 소비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표본농가와 모니터 조사 결과 2026년산 하우스감귤 생산량이 2만 7100t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평년(2만6678t)과 전년(2만 6200t) 대비 각각 1.6%, 3.4% 증가한 양이다.

재배면적은 459ha로 평년(440ha) 대비 4.4% 증가하고, 전년(461ha)과 비교하면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산 하우스감귤 첫 수확은 지난 6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이뤄졌다.

제주감귤농협은 이날 김한규 조합원 과원에서 하우스감귤 2.8t을 수확했다고 밝혔다. 수확한 감귤은 유통센터에서 비파괴선별시스템을 통해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고품질만을 선별, 소포장(800g)해 감귤 5.8. 한라일보 6

자들에게 선보인다.

제주감협은 고품질의 하우스감귤을 선보이기 위해 생육단계부터 생산, 선별, 포장,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달 하우스감귤 출하량은 전년보다 3.3% 감소할 것으로 농업관측센터는 예상했다. 지난 가을 고온 다습한 날씨와 유류비·전기로 상승

으로 가온시기가 지연되면서다. 6월 이후 출하량은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출하된 하우스감귤은 착색 지연에도 품질은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당도도 개선됐다고 농업관측센터는 밝혔다.

또 노지감귤 생육은 3~4월 기온 상승과 일조시간 증가 등으로 수세 회복이 빨라지며 해거리 진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화시기는 평년보다 1~2일 빨라져 최초 개화일은 제주도 지역이 이달 1일, 서귀포시 지역은 이달 4일로 확

인됐다.

한편 2025년 12월~올해 4월 만다린 수입량은 8798t으로, 전년 동기(6693t) 대비 3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g당 수입단가는 전년(2.54달러) 대비 상승한 2.89달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월 이후 만다린 수입량은 무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원가 인하 효과가 상쇄된 데다 품질 저하와 소비 부진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도 원가 하락 요인이 크지 않을 경우 수입량은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지난 6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농가에서 올해산 하우스감귤을 첫 수확하고 있다.

제주감협 제공